

제205회 임시중앙총회 인사말씀

생명의 기운을 담은 봄바람이 일면 싱그러운 마음도 함께 일어납니다. 따뜻한 햇살은 모두의 마음과 몸을 깨우고 있습니다. 총회의장 성문스님을 비롯한 의원스님들 모두에게 생동하는 봄소식으로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와 같이 소중한 정진으로 종단 화합과 발전에 큰 진전을 이뤄내시길 기원합니다.

제34대 집행부도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총무원장의 임기 그 어느 때보다 초심과 공심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습니다. 소임기간 동안 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의 기틀을 닦겠다는 목표에 얼마나 이르렀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화합은 발전의 근간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져야 향후 백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단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인재가 필요합니다. 종단 소임자 모두가 초심과 공심으로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제205회 중앙총회 임시회에 포교원장 추천, 불기2559년 중앙종무기관 결산안, 총무원법 개정안과 사찰법 개정안,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새롭게 모시는 것은 수행공동체의 큰 기쁨입니다. 아울러 새로 모시게 될 포교원장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전법 체계를 점검하고 일대 혁신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과 도심 포교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하며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신도 정책을 점검하고 사찰의 전법 지원 체계를 견고히 세워 명실상부한 사부대중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7대 포교원장스님과 함께 전법의 봄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사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찰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중앙종무기관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수년간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당위적 주장에 그쳤습니

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집중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관련 사업들을 책임성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찰 중창주와 관련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찰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문화재 사찰의 탐방객이 약 1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2559년 중앙종무기관 결산 결과 일반 회계세입은 105.2%, 세출은 92.7%로 양호하게 집행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관악산 연주암의 직영사찰 전환 지정 동의 건도 함께 제출합니다. 종단의 목적사업을 탄실하게 하고 나아가 각 교구별 재정공영제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세상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바둑 실력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겪어온 그 어떤 역사적 시기보다 빠른 변화와 발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체되어 노동의 소외, 저성장,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와 마주해서는 오직 초심과 공심으로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물질의 풍요 속에 소외되어 가는 사람들의 지친 심신을 챙기는 든든한 길벗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고심과 결단의 진중함을 널리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날의 포근함과 싱그러움을 백척간두 일보전진을 위한 정진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년 3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